

광산구, 청년과 ‘더 나은 복지환경’ 추진

동강대·투게더광산과 청춘월담(越談) 협약



광산구가 청년과 함께 지역의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새로운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산구는 12일 동강대학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현장 중심의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해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청춘월담(越談)’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춘월담’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대학과 청년이 협력해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은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다.

이를 시작으로 세 기관은 우수한 인재 양성과, 인재들에게 현장 경험·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동강대는 지역 돌봄에 관심 있는 ‘청춘월담 지기단’을 모집·운영해 복지 현장 참여를 통한 복지정책 발굴에 나선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복지 현장 체험과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광산구는 청춘월담 지기단에 ‘지역 주도형 돌봄 서비스’에 직접 참여해 행정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서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추가 선정

고객 기부자 위한 한우세트 등 10여종 추가



서구가 12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0종을 추가 선정하고 공급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구는 최근 답례품 공개모집을 통해 ▲복합유산군세트·선물용 생과자세트(바이오씨앗협동조합) ▲통닭세트 쿠폰(1969양동통닭) ▲무농약 블루베리·블루베리잼·블루베리잼 만들기체험(천사농원) ▲한우선물세트(벚고을한들축산) ▲수제돈까스 5종세트(첫가락스테이크) ▲삼겹살 모듬세트(태금축산) ▲안소한우우육탕(맛단) ▲반려동물용품세트(트레마켓) ▲낮도환·국산콩나물세트(담다푸드) ▲잡곡·누룽지세트(광민)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표

표상품으로 선정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1월 기부금 10만원 기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6종(광주통합RPC쌈세트, 마왕파이, 참기름세트, 들기름세트, 양념돼지갈비, 물마루 혼합음료)을 선정했다. 이후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만원 이상의 고객 기부가 잇따라 따라 한우선물세트, 반려동물용품세트 등 최대 30만원까지 선택이 가능한 답례품들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 답례품 중 양념돼지갈비세트가 큰 인기를 끌어 2차 답례품에 양동통닭, 한우, 삼겹살, 돈까스 등 다양한 육류 제품을 추가했다.

/조선주 기자

동구 윤림동에 명품 녹지 공간 생겼다

‘도시 숲 조성 사업’ 완료...정자 쉽터·수국 식재 등



동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명품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해온 윤림동 일원 ‘도시 숲(녹지 한 평 늘리기)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윤림동 662-2번지 일원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경작에 따른 인근 주민들 민원이 제기돼 환경정비가 절실히 요구돼왔다.

동구는 총사업비 1억5천000만원을 들여 정자 쉽터 1개소, 체육시설, 경관 조명 등을 비롯해 지난해 조성한 ‘동적골 수국동산’과 연계해 수국 등 17종 5000여 본을 식재해 명품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

/김도희 기자

북구, 베트남-라오스 시장개척 참여기업 모집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베트남-라오스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관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판로확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KOTRA광주전남지원단과 협업으로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10월 말 시장개척단

을 베트남 하노이와 라오스 비엔티안 등 2개국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미용, 뷰티, 생활소비재 등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최종 1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상담 우선, 통번역, 항공료(70%이내), 현지 차량 및 상담장 임차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권형안 기자

광주 학교폭력 1~5월 ‘709→930건’ 급증

“대면수업 재개 영향”...전교조광주 “시교육청 지원 대책 서둘러야”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일선학교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5월 기준 학교폭력 전담기구 신고접수는 총 930건으로 지난해 709건에 비해 221건(31%) 증

가했다. 1월 66건, 2월 16건에서 개학 이후인 3월 253건, 4월 281건, 5월 31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월 46건, 2월 15건, 3월 122건, 4월 255건, 5월 271건이 접수됐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277건으로 지난해 167건보

다 110건(66%) 늘었다.

1월 84건, 2월 26건, 3월 12건, 4월 61건, 5월 94건 등 총 277건이며 지난해는 1월 51건, 2월 21건, 3월 2건, 4월 33건, 5월 60건 등 167건이었다.

올해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폭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

광주시교육청, 서구와 현안 과제 공동 해결 나서

지역-학교 간 상생협력·공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교육청이 12일 교육감실에서 서구와 ‘지역-학교 간 상생협력·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교육청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자치구별 교육진흥 TF의 첫 번째 업무협약이다. 시교육청과 서구는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현안과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주요 협약내용은 ▲학교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지역사회 활용방안 모색 ▲다양한 자원·역량을 상호 공유 및 활용해 사회·교육 문제 공동 대응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이용,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다.

/조선주 기자

진드기 매개감염병 주의보...전남서만 올해 2명 사망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 최소화해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사, 오한,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지난 3일 숨진 순천 8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 결과로 확인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 최소화 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고열,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치명률(18.7%)에 비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2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지난 4월 전남의 80대 여성에 이어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환자 발생지역의 진드기를 채집하고, 병원체 보유양상을 조사하며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등 진드기 감시활동 강화 및 환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하므로 등산, 산나물 채취, 텃밭 작업, 농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윤기복 감염병조사1과장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주기적 사용, 돗자리 사용,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벌레 물린 상처 확인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김근호 기자

목포해수청, 향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 실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향만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향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항과 흑산도항 내 전용사용 허가 향만시설(314개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무단 사용 여부, 사용허가 내용·조건 준수 여부, 허가 시설 관리 상태 등 전반을 점검하

고 불법·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입·출항 사용신고 향만시설에 대해 선박료와 화물료 부과·징수관리의 적정성과 사용료 감면율 적용 적정성 등을 점검해 신고 누락자와 체납자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슈퍼 엘니뇨 온다...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장마 선제적’ 대응

저수지·배수장·배수갑문·시공현장별 대응 체계 확립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가을 여름 슈퍼 엘니뇨 발생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풍수해 재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12일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위기징후 감시체계 가동과 함께 지난달 초 재해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 취약 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관리 저수지 1056곳, 배수장 149곳, 방조제 77곳 등 전체 수리시설 1282곳과공사 현장 110곳, 급경

사지 현장 96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완료하고 중점 관리에 돌입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선제적인 가뭄 대응 체계를 운영해 영농기 차질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한 가운데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서도 신속히 풍수해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준비 태세를 갖췄다.

상황별로 관내 저수지 1056곳에 대해 홍수 기간과 집중호우 예보 시 저수율을 75% 이하로 관리토록 설정했다.

유역 배율이 높거나 하류부 피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저수지 31곳엔

간이 방류시설을 오는 30일까지 설치해 우기에 대비할 방침이다.

배수장엔 자동 인원을 사전 배치하고, 낙뢰 등에 의한 전원 차단으로 가동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엔진양수기 동원 등의 대책도 수립했다. 배수갑문은 갑자기 불어나는 유입수량에 대비해 퇴적도를 준설하고 수문 정상 작동 여부 점검과 사전 수위 조절 등의 대비 훈련을 통해 조작 숙련도를 높였다.

공사 시공 현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실이나 무너짐, 현장 침수 피해 등을 예방토록 점검하고 홍수 기간 이전에 재해위험 공정을 최대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전교조광주지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업무고충은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현장 책임교사의 업무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주소방,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준수 당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검지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다. 특히 담배꽂초 화재 예방을 위해 특정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위험물도 인한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장소에서 화기취급 금지를 강조했다.

섬지역 특화 ‘치안드론’

전남자치경찰위, 개발 속도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섬지역 드론순찰대 운용을 위한 ‘치안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 주민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전남자치경찰위는 ‘섬 지역 치안 드론·운용 체계 개발’을 위한 제4차 실증을 최근 고흥 녹동항과 고흥군청 내부영상망(CCTV) 관제센터에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수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탐조등·경광등·스피커 등 각종 임무 장비를 장착한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2시간·10km이상)이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고, 이동식 관제 차량과 내부영상망 관제센터에서 조종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섬 지역 치안 드론·운용 체계 개발’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주민 공간 현장문제 해결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고흥 상화도·하화도·득량도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마무리 예정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인력 여건상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도 주민 요청이 있으면 안전 예방 서비스, 재난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